2020. 7. 27. (월) 언론보도

기호일보

2020년 07월 27일 (월)
03A면 종합

24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정책 UCC 공모전 본선 심사 및 시상식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및 참석자,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대성동·北 기성동 이름 활용 창의적 영상 빛나

道 평화정책 UCC 공모전 시상식
'평화를 기대 정성을 다해' 최우수
본선 접수작 10편 유튜브에 공개

경기도가 실시한 '평화정책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성동마을과 북측 기성동마을의 이름을 활용해 창의적 영상을 제작한 '평화를 기대, 정성을 다해'가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평화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본선 UCC 영상 10편이 접수돼 지난 24일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이 이뤄졌다. 본선 접수작 10편은 ▶일복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울려퍼지는 평화의 종소리 ▶한반도 평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다 ▶건늠다리 ▶경기도와 함께 걷는 DMZ 평화관광지 ▶고려사람. 귀향을 꿈꾸다 ▶평화를 기대, 정성을 다해 ▶평화, 평범한 일상의 시작 ▶상대 등으로, 유튜브에서 각 제목을 검색하면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선 심사는 전문가 심사 80%와 SNS 심사 20%를 합산해 평가된 가운데 최우수작에 '평화를 기대, 정성을 다해', 우수작에는 '평화를 염원하다', '경기도에서 울려퍼지는 평화의 종소리'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2개 팀 각 3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수상작은 도 행사 및 정책자료, 홍보물·SNS 등에 활용된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해 한반도 평화를 쉽게 표현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선정된 영상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2020년 07월 27일 (월)
01A면 종합

의정부·동두천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세웠다

경기도가 답보 상태에 있는 의정부·동두천지역 미반환 미군 공여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8조2천777억 원을 투입해 13.8㎢ 면적의 도내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한다.

도는 조성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반환 공여지 16곳을 제외한 나머지 미반환 기지 6곳에 대해 조기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정부와 동두천 일부 미반환 공여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발 방향을 세우고 조기 반환과 개발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미반환 공여지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동두천 캠프 케이시(2천843만㎡) 등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사령부와 숙소, 골프장 등 재산가치 2천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양호한 보존 건축물을 활용해 개발한다. 캠프 케이시는 건물 및 도로시설이 양호한 점과 보산동 관광특구와 인접한 특성을 살린 지역의 핵심사업 공간으로 개발한다.

현재의 건축물을 보존해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고, 시와 함께 조기 반환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 전면에 적극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일부 부지를 공기업 위탁개발로 지역 핵심 시설로 유치하고, 토지 매각이 아닌 필리핀 '클락개발공사(CDC: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의 '민간 장기 임대' 방식의 개발을 추진한다.

클락개발공사는 필리핀 미군 철수 이후 1992년 기지전환개발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지전환개발청 산하 정부기업이다. 군사기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이른바 '클락 경제'의 관리주체로서 미군 반환 공군기지의 관리와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천167개 기업 투자와 2천900개 객실의 호텔 및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미군 공여지 개발 과정에 실질적인 계획을 전달해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